

元老科學技術者の 證言

2

地質學者가 되기까지의 動機와 그 背景



朴 東 吉 博 士 篇

—①—

- ... 科學者가 되려면 다른 學問에 비해 어렵고 특히 基礎科學研究를 하는 科學者의...○
- ...경우는 더욱 어려운 공부를 계속하여야 한다. ...○
- ... 그러나 이것은 科學者 스스로 택한 苦難의 길이기애 이들은 한결같이 科學者가...○
- ...된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
- ... 科學者가 되기위해 험난한 人生의 가시밭길을 무수히 헤치고 살아온 朴東吉博士. ...○
- ... 朴東吉博士는 弱冠 20歲에 渡日, 科學者가 되기 위해 살을 여의는 듯한 苦辛을...○
- ...무릅쓰고 오직 學業에만 熱中했다. ...○
- ... 朴東吉博士가 科學技術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걸어온 背景과 地質學을 研究하...○
- ...게 된 動機를 알아보는데는 까마득한 朴博士의 어린시절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
- ...이래서 本誌는 이번호부터 朴東吉博士를 모셨다. <編輯者註> ...○

★ 略 歷 ★

- 1925. 3. 日本大阪高等工業學校 應用化學科 卒業
- 1930. 3. 日本東北帝國大學 理學部 卒業
- 1930. 4. 同校 理學部 副手
- 1936. 3. 延禧專門學校 講師
- 1946. 4. 大韓地質學會 회장
- 1949. 9. 國立地質鑛山研究所長
- 1952. 4. 서울大 工大 教授
- 1954. 7. 仁荷工大 教授
- 1955. 7. 高等考試委員.
- 1959. 10. 原子力院 原子力委員
- 1960. 9. 學術院 終身會員

가제골 빈곤한 선비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때 만해도 대부분 어렸을 때 書堂에 가서 漢文을 먼저 배우다 普通學校에 들어 가거나 아니면 그 걸로 學業을 마치는 경우가 많았다.

나도 例外는 아니었다. 먼저 書堂에 가서 漢學을 배우다 늦게 1學年 入學을 하려고 했더니 나이가 많다고 받아주지 않아 2學年에 編入, 普通學校를 졸업했다.

졸업전 1916年 12月로 기억된다. 나와 같은 반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던 친구 박승대, 최주희 셋은 우연한 자리에서 졸업 후 우리의 갈길을 의논하게 됐다.

우리 셋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學校에서 東洋의 맨체스터라고 배운 工業都市 日本 大阪에 건너가 대장장이 技術을 터득해 가지

◎대장장이 技術에의 꿈

나는 1897년 7월 충남 전의군 송정리 신대리

★ 特別企劃 ★

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사는 것이 어떠한지 의견이 나왔다.

지금 생각하면 하필이면 대장장이 技術이냐고 異狀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어린 우리 셋은 그 이상의 좋은 생각은 없다고 여기고 이같은 提案에 별다른 異議없이 卒業後에 가기로 合意했다.

그런데 건너가는 方法이 問題였다.

우리 셋은 여러가지 궁리끝에 당시 우리 國民學校 계바다校長을 찾아가 大阪에 갈 수 있도록 手紙를 줄 것을 간청하기로 했다. 며칠후 우리의 방문을 받고 이야기를 모두 들은 계바다校長은 너희들이 무슨 技術을 배우러 가겠느냐고 물기에 대장간 技術을 배우오겠다고 말했더니 절절 웃으며 절대 안된다고 잘라 말하지 않는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줄라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우리 셋은 그날 失意를 안고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우리 셋은 卒業하기까지 約 2個月 동안 校長室을 찾기도 하고 나중에 私宅까지 방문, 大阪에 보내줄 것을 간청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 다니는 우리 決意에 계바다校長은 感動했던지 하루는 좋다고 말하며 너희들 뜻이 정회 그렇다면 父母의 승낙은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때 만일 父母가 反對할 것이라고 하면 渡日의 꿈이 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아직 승낙은 받지 않았으나 技術을 배우 오겠다고 말씀드리면 캐히 승낙할 것이라고 對答하고 계바다 校長의 눈치를 살피 왔다. 우리 세명의 똑같은 대답에 계바다 校長의 表情은 그리 나빠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이런 일이 있던 얼마후였다. 하루는 계바다 校長이 우리 셋을 함께 오라고 한다.

무슨 일인가 하고 모두 불려간 우리 셋은 沈黙을 지키며 淸정을 바라보고 있는 계바다 校長의 말만 기다리고 있으려니까 무척이나 焦燥했다. 마침내 말문을 연 계바다 校長은 너희들 셋은 이제 日本 大阪에 가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계바다 校長은 大阪市 商工課에 未成年 셋이 技術을 배우러 가겠다하니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편지를 띄웠는데 보내라는 回答이 왔다하며

準備를 서둘라고 했다.

이때 나는 앞으로 있을 苦生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

이때부터 우리 셋은 日本에 건너갈 준비를 하나하나씩 했다.

같이 가게 될 親舊 박승태와 최주희는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를 팔아 각각 노자를 준비하고 나는 누님을 찾아가 메를 써서 20원을 마련 故郷을 떠났다.

普通學校 다닐 때 쓰고 다니던 帽子를 쓰고 두루마기도 안 입은채 때묻은 韓服을 입고 신발은 집세기·뒤꽂무니엔 주먹밥 다섯덩어리를 싼 보자기를 둘러메고 우리 셋은 조치원驛을 떠났다. 大阪市廳에 도달하기까지의 갖은 受難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웃음거리가 된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마을을 떠날때부터 동네 사람들은 화령선(汽車)을 타면 日本 사람이 우리의 肝을 내藥으로 使用할 터인데 큰일 났다하며 야단법석을 떨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 日本을 가기로 決心한 것을 이제 마음을 달랠 수 없다하여 父母님을 비롯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난 것이다. 우리 셋은 汽車를 탄 7~8시간 후 밤 8시경 釜山에 到着했다.

◎親舊와 셋이 渡日

生後 처음 나들이를 하는 우리 셋이 釜山驛에 到着하고 나니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음은 물론 배도 어디서 타야할지 난감했다. 그래서 行人들에 물어서 경우 船着場에 도착한 우리는 사람들이 쭉 열을 지어 늘어선 틈에 끼어 무조건 따라들어 가고 보니 다다미가 깔린 3等 배속이 아닌가.

배를 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 우리는 배가 가고 있는지 안가는지도 모르고 가끔 유리창을 때리는 파도소리만 들으며 뜬눈으로 밤을 지 세웠다.

8~9시간쯤 꿈쩍않고 있으려니까 누군가가 모두 下船하라고 외쳤다.

내리고 보니 맑게 개인 하늘에 햇살이 밝게

비치는 아침. 視野엔 멀리 市街가 있고 자그맣게 오가는 사람들도 보였다. 그때 우리들은 그곳을 日本 大阪인줄 알고 이젠 됐구나 하고 安堵의 숨을 쉬려는 순간 大阪이 아니고 下關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나는 우리가 떠나기 전에 계바다校長이 준 쪽지가 생각났다.

계바다校長은 『너희들이 日本大阪까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방황하게 될 때는 아무에게나 이 쪽지를 내보여주라』고 했다.

나는 이 쪽지를 지금도 保管하고 있지만 內容인즉 大都市 각 警察署長에게 「日本 大阪市廳商工科와 協議해서 이들 3명을 보내니 도중에 길을 잃어 방황할 때는 案内를 해주라」는 書翰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쪽지를 들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으니까 세까만 옷을 입고 긴 칼을 찬 순사 한 명이 우리 앞을 가로 막으며 너희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다.

이때다 하고 나는 손에 들고 있던 그 편지를 내밀었더니 大阪行 汽車驛을 가르쳐 주어 손쉽게 기차를 탈 수가 있었다.

그때 우리 모습은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日本 땅에서 짐세기를 신고 며칠동안 세면도 못한 채 그동안 새까맣게 더럽혀진 韓服을 입고 있었으니 行人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밖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은 아랑곳없이 기차를 타고 있으려니까 그제서야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날때 보자기에 싸운 주먹밥을 꺼내 놓고 셋이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차속 日本人들은 더러운 것을 먹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며 킬킬거리고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에 아랑곳없이 다먹어 치운 우리는 복이 말라 차내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 물을 손으로 받아 마신일도 있다. 그런데 이날 3時頃 기차가 히로시마(廣島)를 막 지날 때인것 같다. 나는 그동안 너무 피곤해서 잠깐 졸은후 눈을 떠보니 같은 一行 박승대가 없었다.

웬일인가 해서 나와 회주회는 차내 화장실 등을 살살히 찾아 보았으나 없었다. 더욱 이상한 생각이든 우리는 다시 이곳 저곳을 살펴보니 저

쪽 乘降臺서 두다리를 쭉뻗고 아이고 아이고 큰 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웨이러느냐고 우리가 묻자 그는 『이렇게 먼저 모르고 왔다』며 『이젠 오도가도 못하게 되어 아버지 어머니도 못보게 되었다』고 더욱 큰소리로 슬피우는 것이었다. 겨우 달래 자리로 돌아온 우리는 하루종일 타고 그 이튿날 아침 6시 靑雲의 뜻을 펴기 위해 그동안 학수苦待했던 大阪驛에 내렸다. 여기서도 下關에서의 마찬가지로 계바다校長이 준 쪽지를 들고 왔다갔다했더니 또 순사가 나타나 내가 내민 쪽지를 읽어보고 大阪市廳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大阪市廳을 찾아가는 우리 셋은 보는 것마다 놀라게 느껴졌다. 충청도 가게골에서 입으로 불어 끄는 호롱불만을 보고 살아온 우리는 수많은 街路燈불이 어떻게 한꺼번에 켜지고 저렇게 많은 불을 입으로 불어 끄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랐다. 특히 전선줄을 메어놓고 양쪽으로 다니는 電車が 더욱 신기했다.

그때 우리 생각엔 電線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메어놓고 양쪽에서 빨리 잡아다니는 줄로만 알았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신비롭게 여겨보며 이야기를 하다 오는 사이 어느덧 大阪市廳에 도달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日曜日이었다.

그래서 宿直員인 듯한 日本人에게 우리 身分을 밝히자 어제 到着할 줄 알고 驛에까지 나가 기다렸었다고 말하며 日本人書記 핫도리씨를 電話로 불러냈다.

그는 日曜日인데도 市廳까지 나와 왜 어제 오지 않았느냐며 오늘은 旅館에서 쉬고 내일 아침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면서 자기 집으로 갔다.

◎紡織會社 職工生活

핫도리 書記의 案内로 大阪驛근처 旅館에 旅裝을 푼 그때 우리 셋의 호주머니엔 단돈 3원 몇십전 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나가 구경도 할 수 없고 해서 해가 지도록 종일 방에 갇혀 있다가 저녁상

★ 特別企劃 ★

을 받았는데 이때의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있다.

日本人女子가 들고 온 밥상엔 日本人들이 즐겨 먹는 된장국과 生鮮 한토막 그리고 간장병, 광 몇조각이 올라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우리를 애기 취급하듯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하나씩 밥을 떠먹이지 않는가!

그녀가 떠주는 밥은 배가 고플때로 곱아 있는 우리 차자를 채워 주기엔 너무량이 적고 싱거워서 도대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마침 밥을 떠먹이던 그녀는 어느정도 먹었다고 생각했던지 그만 먹을 것을 말하고 차를 가지러 갔다.

우리 셋은 이때다 하고 밥통에 많이 남아있는 밥을 간장에 말아서 다먹어 치워버려 그후 차를 가져온 그녀를 놀라게 한 웃으운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있는 다음날 아침 9시경 핫도리書記의 뒤를 따라 大阪市廳 기사商工課長 앞으로 갔다.

親切히 맞아주는 기사商工課長은 우리들 이야기를 들은 후 『너희들이 自進해서 技術을 배우겠다고 나선 생각이 펴 기록하다며 꼭 成功해서 歸國하라』고 말한 후 『그러면 무슨 技術을 배우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 서슴없이 日本말로 『가지야 技術(대장장이技術)을 배우겠다』고 말하자 내말이 얼마나 웃으웠던지 크게 소리내어 깔깔댔다.

그러한 기사商工課長은 핫도리書記를 자기방에 불러 한참 의논한 후 우리들 앞에 다시 나와서 『韓國은 목화가 많이 생산되므로 紡織技術을 배우는게 어머냐』며 될 수 있으면 자기 말에 따라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기사課長은 당시 日本屈指의 東洋紡織工場社長도 英國의 紡織機術을 배우기 위해 汽船보일러 속에 숨어 密航, 紡織技術을 배워온 후 지금의 工場을 세우고 日本紡織 技術발달의 旗手가 되었다고 들려주며 우리들도 그와 똑같은 立場이므로 지금부터 紡織技術을 배우라고 권하였다.

그때 우리는 기사課長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자 곧 바로 동양방직

사관도 공장 職工見習生으로 보내졌다.

첫날 우리는 생전 처음하는 목욕을 마치고 나니 그날 저녁은 잠이 오지 않았다.

이제부터 技術을 배우게 되었다 보다 하고 지난 날을 생각하니 마음이 허전하기까지 했다. 技術을 배우기 위해 渡日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애를 태우며 이때를 기다렸던가. 앞으로 다가올 逆境같은 것은 조금도 걱정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분은 잠깐에 불과하고 그 이튿날부터 내 日本生活의 苦難의 章이 펼쳐지기 始作했다.

파란 作業服을 타입고 아침 5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까지 기름걸레로 機械를 닦는게 내가 맡은 일이었다.

이와같은 일을 두어달 시키더니 다음엔 英國製 도리바式 紡織機械 修理를 할 때면 技士를 거들라고 했다. 이때 우리 셋의 宿所는 工場에서 30分距離의 工場寄宿所. 한방에서 셋이 職工見習생활하던 그해 9월경이다.

박승대가 感氣로 말썽을 부렸다.

病院에서 주는 藥을 먹지 않고 내버려 感氣는 惡化, 날이 갈수록 熱이 더욱 심해갔다.

나와 崔는 하는 수 없이 工場內 院病에 入院시켰다. 그러나 차은 계속 藥을 버리고 나중엔 음식도 거절했다. 이렇게 하여 入院 10일째 되던 날 나와 崔가 점심시간에 病院을 들렀을때다.

차은 우리에게 會社에 保證을 서고 旅費를 마련해 주면 집에 돌아가서 송아지를 팔아 그 돈을 붙여 주겠다고 歸國할 수 있도록 서둘러달라고 애원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會社에 가서 事情 이야기를 하고 15원을 빌려 기차표도 사주고 해서 항상 말썽을 일으켰던 박승대를 歸國시켰다. 지금까지 셋이 똑같이 苦生을 하며 千哩他鄉 異國에서 겨우 技術을 배우는구나 했더니 그중 한사람이 떨어져나간 후 나의 섭섭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와같이 나의 錯雜한 마음이 가시기도 전 다음해 쯤 최주희도 歸國하고 말았다. 이제는 나 혼자 남아야만 했다.